쓰치자키 미나토 역사전승관

쓰치자키 미나토 역사전승관은 무역, 교역, 상업의 중심지로 번영했던 쓰치자키 지역의 역사를 전하는 곳입니다. 인터랙티브 패널을 통해 항구의 발전, 그중에서도 특히 1700 년대 중반부터 1900 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상선이 오갔던 시대에 초점을 맞춘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전시실에서는 제 2 차 세계대전(1939~1945) 말기의 대공습으로 인한 피해 기록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승관 일부에는 쓰치자키 신메이샤 신사가 주최하는 쓰치자키 미나토 히키야마 축제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이 축제에서는 무사 인형으로 장식한 목재 수레인 히키야마를 지역 주민들이 끌며 골목을 행진합니다. 시설 내 아트리움에는 높이 11.5m 의 히키야마 복원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선이 설치되기 전에는 높이가 20m 이상인 히키야마를 끌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처럼 큰 히키야마는 만들 수 없지만 박물관에 전시된 멋진 히키야마의 기록과 사진을 통해 2016 년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쓰치자키 미나토 축제의 장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쓰치자키 미나토 역사전승관은 포트타워 세리온에서 도보로 약 15 분 거리에 있습니다.